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강건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선교헌신예배 (교단 총회 북한선교위원회 사역 소개 및 기도)

오늘 주일(4.28)은 선교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북한선교위원회 사역 소개와 통일선교훈련원 과정 소개 및 통일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3. 어린이주일 / 어버이주일

다음 주일(5.5)은 어린이주일 및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대표기도 : 한은총어린이
특 송1 : 날아라 새들아 (다같이)
특 송2 : 어머니 은혜 (교회학교-어린이, 청소년, 청년부)

4. 구역예배 일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구역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장소는 5월 2일(목) 이가를 권철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5. 전교인 전도 / 슬러시 기계 사용

매주 금요일 오후 3-6시에 전교인 전도가 교회 앞 공원에서 있습니다.
슬러시 기계 자율적인 사용은 매주 주일 사용하실 수 있어요.

6.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 교회 시설의 편의와 위생을 위해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합니다.
- ① 분리수거 : 커피 아이스스타제티 껍질은 반드시 쓰레기통에 넣기.
 - ② 위생시설 : 남은 커피 음료를 정수기에 버리지 말기(악취 발생)
 - ③ 편의시설 : 도서 · 놀이기구 · 생활도구 · 악기 등 사용 후 제자리!
 - ④ 부대시설 : 창고는 목사님과 안수집사님 안내 받고 사용하기(위험).

7. 2024년 4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3.23 ~ 3.24)

5/18(토)-임명자 집사(-4.11) 5/25(토)-김선국 형제 5/27(월)-문재호 형제
5/27(월)-김아람 어린이

행사 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4/28	선교헌신예배(북한선교위원회)
05/01	찾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05/05	어린이주일 / 어버이주일
06-07	북한선교위원회 통일선교훈련원 전문가 과정 2기(한승훈임명순)
05/07	북한선교위원회 제 12회 총회 (총회본부 대예배실 오전 11시)
05/09	주님 승천일
05/12	스승의 주일
05/19	성령강림절 (교회총력전도주간)
05/26	삼위일체주일 / 성결교회주일
06/01	찾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06/02	농어촌 선교주일

주일 사랑 운동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주일학생부예배		낮	1: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3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썬 마 학 당	(상당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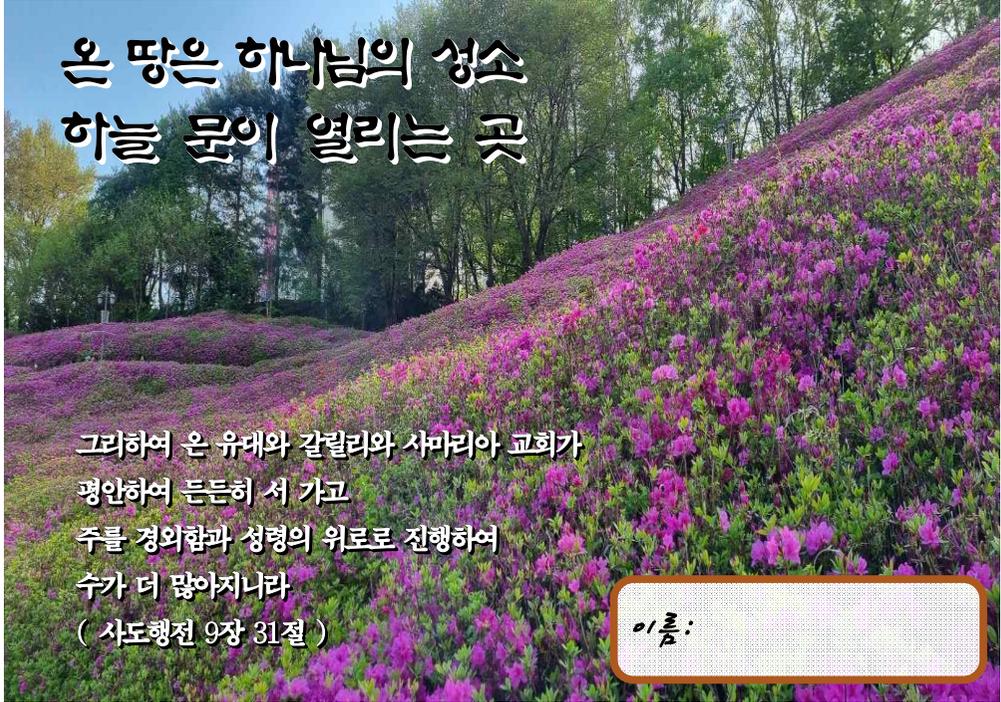


- 04/28 박제연 집사
- 05/05 한은총 어린이
- 05/12 이광근 안수집사
- 05/19 임명자 집사
- 05/26 임명숙 집사
- 06/02 김혜숙 권사
- 06/09 정애자 권사
- 06/16 이가를 권철
- 06/23 박제연 집사



주사랑 7권 17호 | 창립 2017.11.25
기 특 교 주사랑교회
대한성결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2024년 표어 (행 9:31)
상행과 동행으로 평안과 부흥 누림
은혜와 진리의 말씀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은사공동체
섬기고 전하는 사랑공동체



이름: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한승훈 목사 (010-4724-3562)
교육간사: 임명순 사모 (010-8177-0617)
찬양운동: 아하바
피아노: 임명순 한은총
드럼: 한희락 한태민
예배영상: 한성결
대표기도: 박제연 권철 (다음주: 한은총 야비)
헌금위원: 이재아 야비 (다음주: 한태민 야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618,
3층 301호 (세류3동, 성원(상가))
Tel. 031) 234-1691
Fax. 070) 4015-1691
0504) 472-3562
<https://jusarang.org>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다 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중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삼상 19:4~5)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이니이다 그가 자기 ()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 ②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집으로 피신한 다윗을 위해 그의 아내 미갈이 취한 행동은?(삼상 19:12~14)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우상 : 드라빔)
- ③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친 곳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삼상 19:18)
다윗이 도피하여 ()로 가서 ()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으로 가서 살았더라
- ④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위임할 것을 미리 알았던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큰 범죄 계획을 막아서서 간청하며 다윗에게 맹세한 것과 그 동기는? (삼상 20:15~17)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을 내 집에서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을 사랑함 같이 그를 ()함이었더라
- 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본심은 무엇이었나요? (삼상 20:31~32)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 오라 ()이나라 한지라
- ⑥ 이 사람은 사사시대의 대제사장 엘리의 자손이며, 법궤를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겼던 비느하스의 유복자 이가봇의 아들로, 굶주리고 쫓기던 다윗을 거룩한 떡으로 공대했다가 이후에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공홀이 여겨서 그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아비아달에게 다윗 왕권 시대의 대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섬기게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삼상 21:1~2)
다윗이 ()에 가서 제사장 ()에게 이르니 ()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좃아가노라
(빌 3:13~14)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파스칼(Blaise Pascal)이 주님을 만난 후 세상에서의 방향을 끝내고 다음과 같이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큰일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작은 일을 마치 큰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크랜턴 대학교(University of Scranton)의 조사에 따르면 약 8%의 사람만이 신년에 세운 목표를 이뤄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반드시 신년 목표를 세울 것을 권했는데, 그 이유는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들의 성취율은 0%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여호수아 1:9),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바른 목표를 세우고 뜨거운 열정을 품으십시오(마태복음 6:33).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송가..... 찬 208장.....	다	같	이
대표기도.....	이	가	를
성경봉독..... 열왕기상 6:1~13 (구 519).....	정	애	자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마음의 건축			
삶의 나눔.....	다	같	이
합심기도.....	다	같	이
헌금찬양..... 찬 524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들어가는 말

솔로몬 제위 4년(B.C. 966)부터 시작된 성전건축이 7년 6개월 후 완공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3층 구조의 건축물이며, 성전 앞쪽에는 돌출된 출입구가 있고, 내부에는 모세의 성막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돼 있으며, 바깥쪽에는 창문과 다락과 골방들이 붙어있습니다. 성전건축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백성의 대표자로써 왕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에서 성전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건물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1).

성전건축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마음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합니다. 성전을 웅장하고 이름답고 멋지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자기 백성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본문은 솔로몬 성전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세워졌음을 명백히 밝힙니다(1절).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던 모세가 지은 성막도(민 12:7),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도(창 22:12), 모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지 48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출애굽 시기가 BC 1446년이었음을 추정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 두드러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입니다. 이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출 3:14)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신이 되셨으며(출 3:15),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출 19:5).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대상 28:5). 따라서 성전건축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상징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은 단지 ‘여호와와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성전건축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더 이상 유랑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출 19:6).

둘째, 규모보다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2~10).

말씀대로 행한 성전건축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을 다 완성한 후 백성들은 그 크기만 놓고 보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성전의 외벽, 다락, 지붕 등을 제외한 성전 내부 본체의 규격은 가로 60규빗(27m), 세로 20규빗(9m), 높이 30규빗(13.7m)로 약 249m²(88.935평) 정도입니다(2절). 성막보다는 2배 커졌지만(2절), 주변 나라의 신전들과 비교할 때는 지극히 작고 초라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크기와 외모로 규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와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삼상 16:7).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능력행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순종과 관련이 깊다고 했습니다. 혹자는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가 초라하고, 성전건축 기간도 솔로몬 왕궁 건축 기간에 비해 짧았던 이유를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지어진 공간에,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백성간의 화목과 사귄입니다. 과거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써 이것을 중재했다면, 이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잘 이어져가고 있다면, 교회의 규모나 건물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은 그릇으로 귀히 사용될 것입니다.

셋째, 외형보다 내용을 생각해야 합니다(11~13).

순종으로 완성될 성전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이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나 언약재를 도구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십니다. 다윗의 당부대로(2:3~4),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고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즉, 이 왕위가 영원히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결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광스러운 성전을 가졌음에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갖는 의미보다 성전이라는 형식을, 삶의 영광스러움보다는 규모를, 말씀에 합당한 삶의 내용보다는 외식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성전대움은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하는 성결하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어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실체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지에 꼭 붙어있어서(요 15:4),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빌 1:11).